



energy snapshot

Analyst. 손지우 / 3773-8827, jwshon@skks.co.kr

사우디의 감산고집, 인플레 압박도 이길까

- ▶ 사우디, 3월 OPEC+ 회의에서 인도의 증산요구 불구하고 예상 외 감산 지속. 다만 4월 증산 가능성 열어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플레 압박 고려한다면 고집 지속 쉽지 않을 것. 유가 60달러 저항선 역할 가능

인도의 증산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고집한 사우디

사우디, 인도의 유가 안정 요구 일축 ... "있는 재고나 다 쓰세요"

(전략) 사우디는 4일(현지시간)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연합체인 OPEC+에서 예상 밖 감산협의를 이끌고, 주요 원유 수입국의 증산 요청은 일축했다. 이날 유가는 약 4% 올랐다. (중략) 4일(현지시간) 에너지인텔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우디는 4월에도 일평균 100만배럴 규모 자체 감산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사우디는 지난 1월 100만배럴 자체 감산 계획을 내놨다. 압둘아지즈 장관은 "사우디가 향후 차차 감산폭을 줄이겠지만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 : 한국경제(2021년 3월 5일), SK증권

다만 각국의 인플레 압박에도 사우디의 고집이 이어질까?

파월 실망에 채권금리 또 급등..."2월 보다 더 오른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발언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며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1.5%를 넘어섰다. 의장 발언이 전해진 이날 오후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1.54% 수준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중략) 시장은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Fed가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중략)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고 있는 점도 국채금리엔 부담이다. (하략)

자료 : 한국경제(2021년 3월 5일), SK증권

- OPEC+ 회의에서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우디는 증산이 있을 것이라 대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감산지속"을 발표했죠
- 연초 이후 지속적인 증산을 주장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게만 소폭의 증산을 허용하고, 나머지 회원국은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 특히 '자발적 100만b/d 감산'이라는 사우디의 약속은 4월에도 지속된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의지를 반영해 금요일 WTI는 +4.2% 상승한 \$63.8/bbl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특히 OPEC+ 회의 전 인도 석유장관 다르멘드라 프라단이 "당초 2021년초 증산 약속을 어긴 것은 유감"이라는 언급을 했었음에도 사우디가 강경한 증산태도를 보인 것이 주목할 만 했습니다
-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우디의 강력한 감산의지는 여전합니다

다만 사우디가 이해 안 되는 감산 정책을 정황 상 언제까지 이렇게 감산정책을 실질적으로 고집할지는 의문입니다

- 일단 \$60/bbl이 넘어서면서 OPEC 회원국들도 증산을 통해 물량 경상화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 압둘아지즈 석유장관도 "향후 감산폭을 차차 줄이겠다"라고 언급은 한 상황이죠
- 더군다나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Fed의 금리인상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두드러진 변동성 및 약세를 보인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 당연한 것이 최근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전년 대비 크게 오른 유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요
- 인도의 반응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각국의 따가운 눈총이 이어진다면 사우디의 고집도 계속되긴 쉽지 않죠
- \$60/bbl은 지난 7년 여 저유가 시대의 저항선이었습니다. 과연 쉽게 뚫릴 수 있을까요? 누차 말씀 드리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